

※ 2011년 시립극단 공연현황 총괄

| 일시/장소 | 공 연 명 | 출 연 | 프 로 그 램 | 관람인원 |
|----------------------------|------------------------------|---|---|---------|
| | 28건 / 76회 | | | 20,776명 |
| 2011. 1. 16(일) 장애인 자립선언 | 찾아가는 공연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 작 : 김란이 연출 : 손경희 * 출연진 * 조옥선 강주희 김문정 최지연 김희원 * 스텝 *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 도시화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이웃이 누군지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각자의 삶을 살기에 급급하다. 이미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주차문제와 다문화가정 문제 등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던 이 나라가 점점 물질 만능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는 적어도 이웃이 누군지는 알고 지내는 조용한 주택가가 그 배경이다.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여러 가지 편견들을 코믹 스텔러로 표현코자한다. 모든 대사를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뿐만 아니라 연변 사투리까지 구성해서 우리말의 풍성한 재미로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코자 한다. [줄거리]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 순이네가 쌀통을 끌고 나오더니 옆집 미나네 대문 앞에 버린다. 마침 미나네가 나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왜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냐며 말싸움이 벌어진다. 옆집 동진네가 나오더니 문제의 쌀통은 원래 다른 곳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때 뒷집 유리네가 보더니 옆 동네에 동진네가 버린 그 쌀통이 왜 여기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자 순이네가 떡해먹자고 제안한다. 의견일치를 한 그녀들이 쌀을 말리려고 쏟아 붓는데 손가락 5개와 발이 한짝 나온다. 기겁을 한 그녀들이 신고하려는데 돈뭉치가 나오자 고민에 빠진다. 신고하자니 돈이 아깝고, 돈을 갖자니 양심에 걸리고.... 과연, 그녀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 50명 |
| 2011. 3. 21(월) 희망의 집 | | | | 27명 |
| 2011. 3. 22(화) 금빛 사랑채 | | | | 22명 |
| 2011. 3. 23(수) 소망의 집 | | | | 85명 |
| 2011. 3. 24(목) 남동구 치매센터 | | | | 29명 |
| 2011. 3. 25(금) 학익 돌봄의 집 | | | | 40명 |
| 2011. 3. 28(월) 장기늘봄사랑터 | | | | 50명 |
| 2011. 3. 29(화) 부평행복의 집 | | | | 40명 |
| 2011. 3. 30(수) 연수은빛사랑방 | | | | 50명 |
| 2011. 3. 31(목) 서구 치매센터 | | | | 35명 |
| 2011. 4. 1(금) 남구 돌봄의 집 | | | | 36명 |
| 2011. 4. 3(일) 문화로가게 | | | | 80명 |

| 일시/장소 | 공 연 명 | 출 연 | 프 로 그 램 | 관람인원 |
|--|-----------------------------|---|--|---------------|
| <p>2011. 2. 11 ~ 27 소공연장 (30회)</p> | <p>제58회 정기공연 “어린왕자”</p> | <p>작 : 썩 뻥쥐베리 연출 : 이종훈 작곡 : 최종혁 작사 : 오성민 극본 : 고인배</p> <p>* 출연진 *</p> <p>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최지연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객원) 이예찬</p> <p>* 스텝 *</p> <p>안무 : 이지영 노래지도 : 한설희 무대디자인 : 박재범 조명디자인 : 최형오 음향디자인 : 김현산 의상디자인 : 손진숙 분장 : 김문희 영상 : 박준 비디오 : 공정태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 <p>비밀을 가르쳐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p> <p>이 작품은 썩뻥쥐베리의 대표작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순수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어린왕자의 이야기이다.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어떤 별에서 우주여행을 온 어린왕자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작가의 인간애와 섬세한 관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소행성에서 온 어린왕자가 들려주는 특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책임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과 사랑의 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는 숨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p> <p>[줄거리] 아주 조그마한 별에서 장미꽃과 살고 있던 어린왕자는 장미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고쳐주려고 별을 떠나 여행길에 오른다.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많은 종류의 인간을 접하게 되는데 오직 권위만 내세우는 여왕,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책만 하는 알콜 중독자, 존재의 개념을 모른 채 헛된 소유욕만 있는 상인, 자신의 존재이유를 내세워 전쟁을 일으키는 군인 등을 나열하면서 인간의 잘못된 가치관을 꼬집습니다. 이러한 여행지를 거쳐 지구에 온 어린왕자는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 썩뻥쥐베리를 만나서 둘은 친구가 되지만 썩뻥쥐베리는 비행기 수리를 하느라 바쁩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고독해 하고 있을 때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는 “진실된 것은 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해. 상대방을 길들이고, 사귀고, 둘만의 역사를 쌓아 친구가 되어야 하는거야. 이렇게 작은 것이 쌓여 온전한 세상이 되는 거 이란다”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어린왕자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유독 한 개의 별이 그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거기에 그가 사랑하는 장미가 있고 그는 장미를 보호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연 때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린왕자는 독이 있는 뱀에게 도움을 청한 후 그가 사랑하는 장미꽃이 살고 있는 그의 별로 돌아갑니다. 썩뻥쥐베리는 어린왕자가 사라져버리자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예전과는 다른 의미가 서려 있음을 깨닫습니다.</p> | <p>8,942명</p> |

| 일시/장소 | 공연명 | 출연 | 프로그램 | 관람인원 |
|---|-------------------------------|--|---|---------------|
| <p>2010. 5. 27 ~ 29 대공연장 (5회)</p> | <p>제59회 정기공연 “아빠의 청춘”</p> | <p>작 : 김정숙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정 현 배일집 배연정 김종원 고 윤 김영희 (객원)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최지연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p> <p>* 스텝 *</p> <p>안무 : 이지영 노래지도 : 임병욱 무대디자인 : 송용일 무대장치 : 전해원 무대조감독 : 이강덕 조명디자인 : 윤현진 음향디자인 : 김현산 의상디자인 / 분장 / 소품 : 손진숙 음향감독 : 김현산 음향감독 : 박희철 사진 : 유재형 비디오 : 공정태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 <p>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p> <p>황혼의 재혼문제를 이야기하는 악극 <아빠의 청춘>은 실버 세대의 고민과 일상을 담고 있다. 아버지의 재혼을 두고 갈등하는 박영감의 자녀들, 자신들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장여사와 김일남씨, 황혼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황영감, 일을 끝내면 어김없이 카바레로 달려가는 주방장 홍영감 등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아기자기하게 담아내어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다.</p> <p>[줄거리] 순두부집 평창옥을 운영하는 홀아비 박영감을 중심으로 그의 자식들과 늙으신 홀아버지, 평창옥에서 일하는 홍영감과 연안택 등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아기자기하게 담아내었다. 남몰래 연정을 느끼지만 서로 눈치만 살피는 박영감과 연안택 외에, 극중 순두부집 손님으로 등장하는 장여사와 김일남씨도 황혼에 만나 인연을 맺는 커플로 등장한다. 아버지의 재혼을 두고 갈등하는 박영감의 자녀들, 자신들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장여사와 김일남씨, 황혼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황영감, 일을 끝내면 어김없이 카바레로 달려가는 주방장 홍영감 등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실버 세대의 모습을 아빠의 청춘에서 확인할 수 있다.</p> | <p>1,484명</p> |

| 일시/장소 | 공연명 | 출연 | 프로그램 | 관람인원 |
|---|--|---|--|--------|
| 2011. 6. 9(목)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 찾아가는 공연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 작 : 김란이 연출 : 손경희 * 출연진 * 조옥선 강주희 김문정 최지연 김희원 * 스텝 *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 | [줄거리]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 순이네가 쌀통을 끌고 나오더니 옆집 미나네 대문 앞에 버린다. 마침 미나네가 나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왜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냐며 말싸움이 벌어진다. 앞집 동진네가 나오더니 문제의 쌀통은 원래 다른 곳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때 뒷집 유리네가 보더니 옆 동네에 동진네가 버린 그 쌀통이 왜 여기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자 순이네가 떡해먹자고 제안한다. 의견일치를 한 그녀들이 쌀을 말리려고 쏟아 붓는데 손가락 5개와 발이 한쪽 나온다. 기겁을 한 그녀들이 신고하려는데 돈몽치가 나오자 고민에 빠진다. 신고하자니 돈이 아깝고, 돈을 갖자니 양심에 걸리고.... 과연, 그녀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 100명 |
| 2011. 6. 9(목) 선학종합사회복지관 | | | | 70명 |
| 2011. 6. 13(월)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 | | | 150명 |
| 2011. 6. 18(토) 야외공연장 | 토요상설무대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 | | 400명 |
| 2011. 7. 1(금) 경주문예회관 | 제2회 한국 국공립극단 연극페스티벌 초청 “아빠의 청춘” | 작 : 김정숙 연출 : 이종훈 * 출연진 * 정 현 배일집 배연정 김중원 고 윤 김영희 (객원)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최지연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 [줄거리] 순두부집 평창옥을 운영하는 홀아비 박영감을 중심으로 그의 자식들과 늙으신 할아버지, 평창옥에서 일하는 흥영감과 연안택 등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아기자기하게 담아내었다. 남몰래 연정을 느끼지만 서로 눈치만 살피는 박영감과 연안택 외에, 극중 순두부집 손님으로 등장하는 장여사와 김일남씨도 황혼에 만나 인연을 맺는 커플로 등장한다. 아버지의 재혼을 두고 갈등하는 박영감의 자녀들, 자신들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장여사와 김일남씨, 황혼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황영감, 일을 끝내면 어김없이 카바레로 달려가는 주방장 흥영감 등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실버 세대의 모습을 아빠의 청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00명 |
| 2011. 8. 4 ~ 6 경남 거창 수승대 축제극장 (3회) | 거창 국제연극제 초청 “아빠의 청춘” | | | 3,000명 |

| 일시/장소 | 공 연 명 | 출 연 | 프 로 그 램 | 관람인원 |
|----------------------------------|---------------------|--|--|--------|
| 2011. 9. 3(토) 야외공연장 | 토요상설무대 “아빠의 청춘” | <p>작 : 김정숙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정 현 배일집 배연정 김종원 고 윤 김영희 (객원)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최지연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p> <p>* 스텝 *</p> <p>안무 : 이지영 노래지도 : 임병욱 무대디자인 : 송용일 무대장치 : 전혜원 무대조감독 : 이강덕 조명디자인 : 윤현진 음향디자인 : 김현산 의상디자인 / 분장 / 소품 : 손진숙 음향감독 : 김현산 음향감독 : 박희철 사진 : 유재형 비디오 : 공정태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 <p>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p> <p>황혼의 재혼문제를 이야기하는 악극 <아빠의 청춘>은 실버 세대의 고민과 일상을 담고 있다. 아버지의 재혼을 두고 갈등하는 박영감의 자녀들, 자신들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장여사와 김일남씨, 황혼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황영감, 일을 끝내면 어김없이 카바레로 달려가는 주방장 홍영감 등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아기자기하게 담아내어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감상 할 수 있는 공연이다.</p> <p>[줄거리] 순두부집 평창옥을 운영하는 홀아비 박영감을 중심으로 그의 자식들과 늙으신 홀아버지, 평창옥에서 일하는 홍영감과 연안택 등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아기자기하게 담아내었다. 남몰래 연정을 느끼지만 서로 눈치만 살피는 박영감과 연안택 외에, 극중 순두부집 손님으로 등장하는 장여사와 김일남씨도 황혼에 만나 인연을 맺는 커플로 등장한다. 아버지의 재혼을 두고 갈등하는 박영감의 자녀들, 자신들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장여사와 김일남씨, 황혼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황영감, 일을 끝내면 어김없이 카바레로 달려가는 주방장 홍영감 등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실버 세대의 모습을 아빠의 청춘에서 확인할 수 있다.</p> | 1,484명 |
| 2011. 9. 8(목) 영흥 에너지파크 | 찾아가는 공연 “아빠의 청춘” | | | 300명 |
| 2011. 9. 23 ~ 25 소공연장 (3회) | | | | 926명 |

| 일시/장소 | 공 연 명 | 출 연 | 프 로 그 램 | 관람인원 |
|-------------------------|------------------------------|--|---|------|
| 2011. 10. 1(토) 야외공연장 | 토요상설무대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 | 도시화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이웃이 누군지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각자의 삶을 살기에 급급하다. 이미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주차문제와 다문화가정 문제 등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던 이 나라가 점점 물질 만능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는 적어도 이웃이 누군지는 알고 지내는 조용한 주택가가 그 배경이다.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여러 가지 편견들을 코믹 스텔러로 표현코자한다. 모든 대사를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뿐만 아니라 연변 사투리까지 구성해서 우리말의 풍성한 재미로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코자 한다. | 350명 |
| 2011. 10. 5(수) 재능대학 | 찾아가는 공연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 <p>작 : 김란이 연출 : 손경희</p> <p>* 출연진 *</p> <p>조옥선 강주희 김문정 최지연 김희원</p> | <p>[줄거리]</p> <p>조용한 주택가 골목길, 순이네가 쌀통을 끌고 나오더니 옆집 미나네 대문 앞에 버린다. 마침 미나네가 나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왜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냐며 말싸움이 벌어진다. 앞집 동진네가 나오더니 문제의 쌀통은 원래 다른 곳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때 뒷집 유리네가 보더니 옆 동네에 동진네가 버린 그 쌀통이 왜 여기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p> <p>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자 순이네가 떡해먹자고 제안한다.</p> <p>의견일치를 한 그녀들이 쌀을 말리려고 쏟아 붓는데 손가락 5개와 발이 한짝 나온다. 기겁을 한 그녀들이 신고하려는데 돈뭉치가 나오자 고민에 빠진다. 신고하자니 돈이 아깝고, 돈을 갖자니 양심에 걸리고....</p> <p>과연, 그녀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p> | 300명 |
| 2011. 12. 16(금) 공항고 | | | | 226명 |

| 일시/장소 | 공 연 명 | 출 연 | 프 로 그 램 | 관람인원 |
|--|-------------------|--|---|--------|
| 2011. 11. 25 ~ 12. 4 소공연장 (12회) | 제60회 정기공연 “햄릿” | <p>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번역 : 신장욱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최지연 김태훈 송주희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객원)</p> <p>고인배 이강덕 이정훈 김한식</p> | <p>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p> <p>특유의 이야기 구조와 인물의 깊이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켜 탄생한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재해석 되어 누군가에 의해 공연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햄릿”은 ‘삶과 죽음’, ‘정의와 불의’, ‘진실과 허구’라는 문제를 둘러싼 햄릿의 갈등과 주저함을 탁월하게 그려 어긋난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의 전형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p> <p>정통에 가까운 고전적인 <햄릿>에 도전, 지성과 이성과 감성의 3박자를 아우르는 주인공 ‘햄릿’을 만들어낸다. 또한 ‘연극의 모나리자’라는 별칭답게 신비롭지만 살아있는 듯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캐릭터와 20개의 장면을 표현할 회전무대를 배경으로 흡입력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p> <p>[줄거리] 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숙부와 결혼하자 크게 상심했는데, 어느 날 부왕의 영혼이 나타나 자신의 죽음이 숙부(클로디어스 왕)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복수를 명한다. 햄릿은 숙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여 사건의 진실을 캐고 복수하고자 하나, 내성적 성격으로 괴로워하며 실천하지 못하고, 그러던 중 유랑 극단이 방문하자, 햄릿은 부왕 독살을 암시한 장면을 넣어 연극을 공연한다. 이를 본 왕과 왕비(햄릿의 어머니)는 당황하게 되고, 햄릿은 영국으로 향하던 중 해적에게 잡혀 포로의 몸으로 귀환한다. 왕은 햄릿으로 하여금 오필리아의 오빠인 레어티스와 검술 경기를 벌이도록 유도하고.....경기 도중 왕비는 왕이 햄릿을 독살하려고 마련한 독약을 마시고 숨진다. 이어 레어티스가 독검으로 햄릿에게 상처를 입히며, 햄릿 또한 검을 빼앗아 레어티스를 찌르고, 그리고는 음모를 꾸민 왕을 찔러 죽인다. 복수는 끝났지만, 햄릿 자신도 몸에 독이 퍼져 죽는다.</p> | 2,234명 |
| 2011. 12. 7(수)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 외부초청공연 “햄릿” | <p>* 스텝 *</p> <p>작편곡 : 미하엘 슈타우다허 무대디자인 : 이태섭 조명디자인 : 나한수 의상디자인 : 정경희, 정혜영, 오세웅 분장디자인 : 손진숙 소품 : 정윤정 사진 : 유재형 팬싱지도 : 장기철, 두화정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 <p>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숙부와 결혼하자 크게 상심했는데, 어느 날 부왕의 영혼이 나타나 자신의 죽음이 숙부(클로디어스 왕)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복수를 명한다. 햄릿은 숙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여 사건의 진실을 캐고 복수하고자 하나, 내성적 성격으로 괴로워하며 실천하지 못하고, 그러던 중 유랑 극단이 방문하자, 햄릿은 부왕 독살을 암시한 장면을 넣어 연극을 공연한다. 이를 본 왕과 왕비(햄릿의 어머니)는 당황하게 되고, 햄릿은 영국으로 향하던 중 해적에게 잡혀 포로의 몸으로 귀환한다. 왕은 햄릿으로 하여금 오필리아의 오빠인 레어티스와 검술 경기를 벌이도록 유도하고.....경기 도중 왕비는 왕이 햄릿을 독살하려고 마련한 독약을 마시고 숨진다. 이어 레어티스가 독검으로 햄릿에게 상처를 입히며, 햄릿 또한 검을 빼앗아 레어티스를 찌르고, 그리고는 음모를 꾸민 왕을 찔러 죽인다. 복수는 끝났지만, 햄릿 자신도 몸에 독이 퍼져 죽는다.</p> | 400명 |